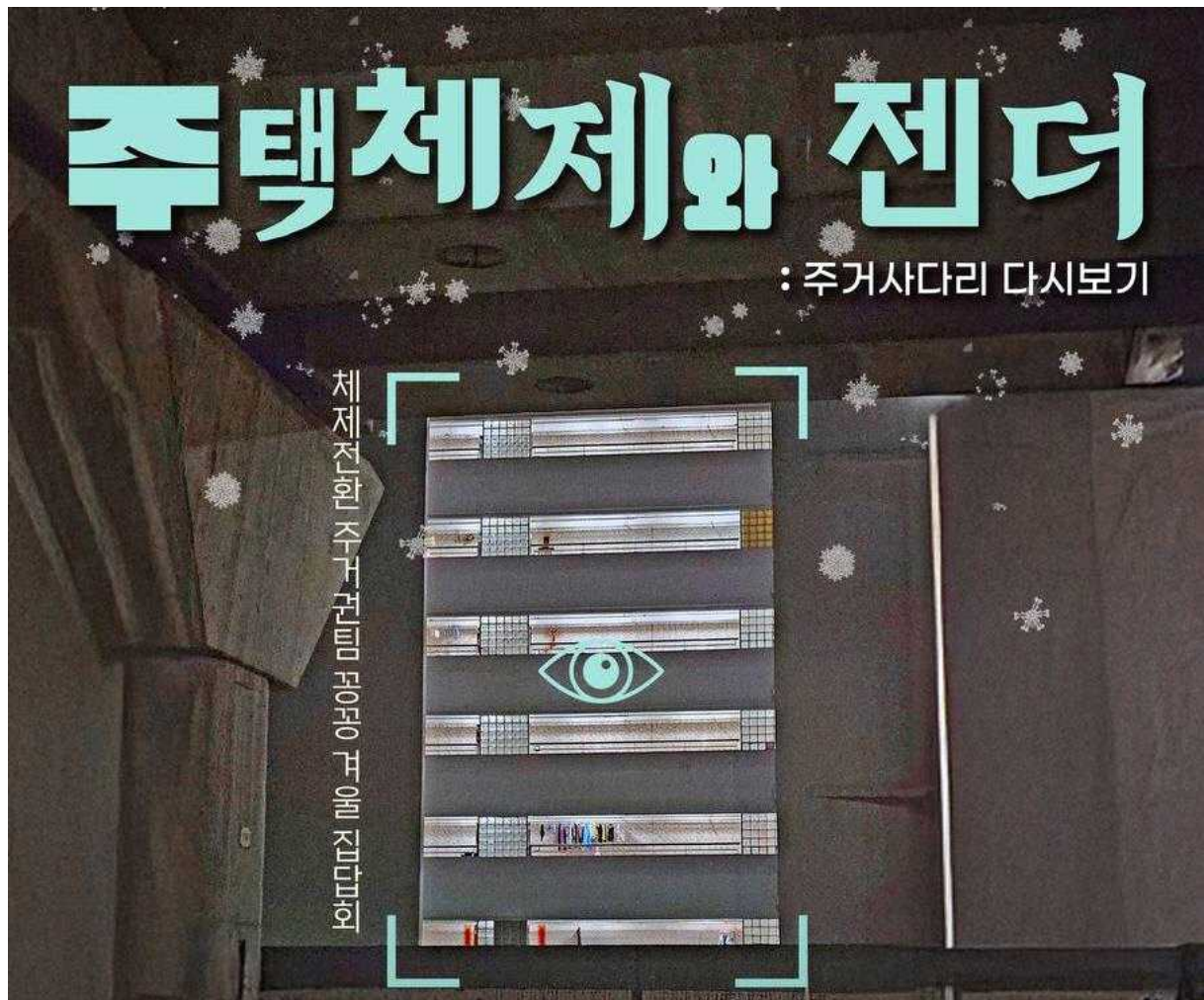




체제전환 주거권팀 공공 겨울 집담회

‘주택체제와 젠더 : 주거사다리 다시보기’

일시 2025년 1월 11일(토) 오전 10시~12시

장소 반빈곤 운동공간 아랫마을

프로그램 × 목차

체제전환 주거권팀 공공 겨울 집담회 ‘주택체제와 젠더: 주거사다리 다시보기’

2025년 1월 11일(토) 오전 10시~12시 | 반빈곤 운동공간 아랫마을

[집담회 ①] 현장조직에서의 고민과 질문들

[진행] 김윤영(빈곤사회연대 활동가)

[발제1] 세상을 바꿀 주거권 운동은 뭘까 : 지수(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3

[발제2] 사회보장과 시민권_ 현장에서의 고민을 중심으로 : 이재임(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7

[발제3] 홈리스 현장에서의 고민들 : 홍시(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10

[발제4] ‘분리된 세계’ 속에서 (기꺼이) 존재하는 여자들 : 나나(반성매매인권행동 이름 활동가) 14

[집담회 ②] 종합토론

[진행] 김윤영(빈곤사회연대)

[패널] 도시와 빈곤 129호 필자 및 집담회 발제자

[필독 원고]

도시와 빈곤 : 129호(2024년 12월호) 주택체제와 젠더: 주거사다리 다시 보기

한국 주택체제와 젠더불평등: 최시현(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공공임대주택 변화 과정과 정상가족에 대한 페미니즘/퀴어 관점의 비판: 정형은(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성매매 집결지 재개발, ‘낙후된 여성’을 축출하는 환상의 팀워크: 김주희(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교양대학 교수)

결혼이민여성의 주거복지 논의, 왜 전대 관점이 필요한가?: 김허보람, 오민정(포용도시연구소)

가난한 망명자의 집 : 여성 홈리스의 주거 실천과 실패: 이채윤(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 필독원고는 오프라인 자료집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측 QR 코드를 통해 온라인 자료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발제1

세상을 바꿀 주거권 운동은 뭘까

지수 /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영화를 추천합니다. 상품화된 집, 가족화된 집을 넘어서는 주거권 운동, 세상을 바꿀 주거권 운동을 하기 위해 우리 다같이 영화 <럭키, 아파트>를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 세상을 바꿀 주거권 운동을 만드는 과정에서 청년 주거 운동 평가하기를 추천합니다. 주거급여에서 배제되는 당사자 이야기 어떻게 기존 체제로 포섭되었는지를 따라가다보면 참고할 것이 있어보입니다.
- 남태령을 비롯해, 차별받고 탄압받는 이들의 흠어지지 않는 연대가 지금의 광장을 거치는 사람들 공통의 경험으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차별을 넘어 평등으로 가자고 외치는 광장의 사람들과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주거권 요구는 무엇일 수 있을지 함께 상상해보고 싶어 조바심이 납니다. 예를 들어, 장기전으로 들어선 퇴진 국면에서 노숙을 경험한 트위터 사용자들이 ‘나도 이번에 노숙해보니 모든 사람들에게는 집이 있어야 한다, 홈리스가 있으면 안된다’라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광장에 모인 이들과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계기의 말들이 될 수 있는지는 않을까? 생각하다 보면 피가 돕니다. 물론, 광장에 모인 이들이 이야기 하는 혐오와 차별, 평등과 연대를 생각하다보면 그 말들이 주거권 운동과는 어떻게 만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싶고, 그것이 주거권 활동가들 그리고 주거권과 가로지르고자 하는 운동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 중 하나라고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세상을 바꿀 주거권 요구는 무엇을 ‘차별’이라고 부르고 어떤 것을 ‘평등’의 요구로 모아갈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 그 고민을 진행하기에 앞서, 보통 사람들의 보통의 말을 생각해봅니다. 가족화된 주택 안에서 사람들은 돌봄과 복지의 빈 자리를 채우고, 경제와 성장에 관한 운명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져왔습니다. 나는 나와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뛰어든 수 밖에 없다고 여기는 마음들, 시장화된 집들 사이에서 겪는 불안과 곤경들이 가진 슬픔과 괴로움의 무게들은 현 주택체제를 구성하는 일부 요소이기도 합니다. 체제 안에서 성실히도 주거불안을 먹고 자라는 부동산투기는 오늘 내 결의 연대자를 내일 내 위의 임대인 혹은 사다리에서 우위를 점한 자가소유자로 유인합니다. 연대와 사랑 같은 것들은 집문제 앞에서 힘없이 개인화됩니다. 내가 로또 되면 너랑 너랑 너랑

같이 살 집 지을게, 들어와서 살아. 같은 말을 친구와 주고 받는 게 최선인 친구들을 떠올립니다.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을 겪은 뒤에도, 이것이 한국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떤 사회적 기억이 되고 있나를 곰곰히 생각하다보면 부족함이 느껴져 괴롭습니다. 누군가는 주거권 운동 하나로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다른 이름의 운동 사이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 수도 있다고도 말합니다. 주거권 운동은 어떤 공동의 전망 내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 정상가족을 재생산하는 주택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택의 탈가족화’를 이룰 수 있는가? 민간주택도 공공주택도 모두 상품화되어 있는 한국의 주택체제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택의 탈상품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것이 제가 함께 풀고 싶은 고민입니다. 이 때, 만약, 주택의 탈상품화, 그리고 탈가족화를 공공임대에서부터 구현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은 공동의 전망이나 요구가 될 수 있을까요? 민간임대가 아니라 공공임대를 먼저 생각한 이유는 ‘나이들고 가난해지는’ 이들을 가장 나와 가까운 연대자로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세입자, 거리홈리스, 쪽방주민, 고시원 거주자, 성폭력피해자, 탈시설장애인, 그리고 가난하고 나이드는 보통사람들. 개인적으로는 내가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가난한 여성 노인. 이들에게 어떤 묶음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가난하고 나이드는’ 사람들이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이는 남태령을 생각하면서도 떠올린 것인데, 차별금지법에 빈곤 차별을 명시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 평등의 의미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¹⁾를 생각하며, 이것이 어쩌면 현 주택체제와 가족체제가 함께 낳은 아주 많은 소수자들의 주거권 요구를 전면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도 이어집니다.
- 소유하지 않으나 존재하고 있는 ‘세입자’ 정체성 논의에 집중하다가도, ‘주거-생활 공동체’ 논의를 하는 당사자들에게 관심이 갑니다. ‘세입자’는 홀로 존재하는 무엇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면, ‘주거-생활 공동체’는 제게 나이듦과 정주까지도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돌봄자-노동자-시민²⁾이 되는 사회에서 ‘주택’은 ‘사회 보장’ 혹은 ‘공공돌봄’의 영역에서 어떻게 취급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주거권’은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주거-생활 공동체’를 이야기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미 소유자 중심의 주택체제와 가부장적 가족체제가 무너지고 있고, 그 폐허에 무언가를 다시 세우고자 한다면, 그 때에 주요한 가치가 돌봄과 연대라면, 그렇다면, 집과 돌봄, 집과 공동체와 같은 논의에 좀더 몰입할 수 있는 어떤 운동이 전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다만, 이것은 어느 정도 ‘지역’을 기반으로 할 수 밖에 없는 논의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제일 걱정은 이것 아닌가요? 나는 가난하고, 앞으로도 가난할 것이고, 평생 집을 사지

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후기] 연속토론회 2회차 “빈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벗어나라?” - 사회경제적 지위 및 상태로 인한 차별을 가시화하기”, <https://equalityact.kr/epilogue0406/>

2) 한국여성노동자회, “2024년 여성노동자가 원하는 제 22대 총선과제”, 출처 : <https://kwwnet.org/60/?bmode=view&idx=17450693>

못할 것이고, 그런데 이런 내가 ‘우리 동네’라는 걸 가질 수나 있나요? 내 친구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내 친구들이 떠나지 않는 ‘우리 동네’ 라는 게 가능키나 한가요? 하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과연 우리가 누구의 땅에서 누구의 비호 아래 서로 돌보고 연대하며 살다가 나이들다가 죽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논의를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사실 ‘지역’, 다르게 보면 ‘땅’이 필요한 것인데. 땅따먹기 운동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공공부지부터 땅따먹기를 해보는 겁니다.... 원래 우리 거야.... 예를 들어, 1) 보람채. 여공들이 살던 임대주택부지를 모두 팔아넘기고 상업시설과 임대건물을 짓고 약간의 청년혁신타운을 마련하는 것으로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공공을 저지하는 것. 그 땅이 과거의 여공, 현재의 나와 우리를 위한 땅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2) 용산정비창. 쿼터들의 땅, 용산에 있는 공공부지를 이 땅의 가난한 소수자들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 이러한 접근은, ‘기존 주거 정책’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에 기존 정책에서 배제되던 소수자들의 주거권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는 과정에서 한정된 자원 내 소수자들 간 우선순위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이것은 누가 더 소수자인가를 가점제도로 녹여내는 현 체제의 한계와는 과연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부딪히는 딜레마를 조금 벗어던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틀을 찾고 싶어서 생각해본 예시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우선순위라는 건 구현되기 어렵고,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말이 법제에서 고대로 구현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여 고심해본 내용입니다만, 더 좋은 의견들이 있다면 나누고 싶습니다.
- 비어있는 자리, 새로운 주거권 운동의 자리를 생각해봅니다. 1) 평등하고 안전한 공동체가 유지되고 돌봄이 행해지는 장소로서의 집, 2) 나이들수록 계급 차이로 벌어지는, 청년/쿼터/여성이라는 이름 하에 묶여있던 이들 사이에서 미끄러지는 이야기들, 3)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이 어떤 사회적 기억으로 사람들에게 남도록 할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 과정에서 주택의 탈상품화, 탈가축화 와 같은 담론 논의를 꾸준히 끌어가며 어느 시공간을 버티거나 뚫기. 정도를 생각해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주거권 운동이 필요할까요? 더 많은 의견이나 상상들이 궁금합니다.
- [주택체제와 젠더 : 주거사다리 다시보기] 집담회는 일회성일 수 있지만, 여름 집담회 이후 겨울 집담회가 열렸듯,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든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다시보기’에 멈추지 않고 갈아엎기, 부러진거 치우기, 뿌수기, 이미 뿌췌었으니 그 자리에 새로운 걸 세우기, 그런 류의 이야기나 상상들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조금 함보다 시간이 필요하다고들 이야기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몇 년 뒤, 어쩌면 10년 단위의 먼 무언가를 점 찍어두고, 이 체제를 뒤집기 위한 (그것이 페미니즘일지 반신자유주의일지 무엇이래 명명할지 모르지만), 여튼 모두의 주거권을 위해 체제를 전환하기 위한 크고 작은 실천행동들을 상상하고 시도하고,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비슷한 실패를 하기 보다는 서로 연결된 자리에서 다양한 실패와 시도들을 함께 쌓

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좋게 생각하냐면, 오늘도 좋겠지만 여름 집담회도 정말 좋았기 때문이에요. 지난 여름 집담회를 열면서, 저는 동두천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집이 과거 기지촌의 일부였다는 점, 현재 부당한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은 채 임대인의 인권침해 행위를 감내하고 있다는 점 등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리홈리스들에게도 쪽방주민들에게도 그렇듯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중요한 ‘커뮤니티’의 존재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세입자의 주거권, 성매매집결지와 도시개발, 가난한 이들이 형성하는 공동체의 힘 등은 서로 다른 단체가 주요하게 다루는 내용이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누군가의 삶에서는 복합적으로 함께 구현되는 무언가이기도 했던 것임을 실감했고요. 주거권 운동을 전략적으로 논의하고자 할 때 함께 공동의 전망과 요구를 모색해볼 필요의 이유를 다시금 확인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존재들의 삶을 뒤에 두고 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을 가까이 하는 다양한 현장조직들의 고민이 서로 연결되고 교차하는 경험의 더욱 절실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 소중~ 끝.

발제2

사회보장과 시민권_ 현장에서의 고민을 중심으로

이재임 /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보호라는 이름으로 우릴 가두지 마!

- 고민의 시작은 한 여성홈리스와의 집 구하기 여정에서 부터였다. 아웃리치 활동 중 만난 A씨는 20대 여성 홈리스이자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다. 가정폭력으로 원가정으로 부터 탈출한 그녀는 주되게는 거리노숙(PC방 등 포함)을 하며 지냈고 이따금 남성 파트너의 집에 더부살이를 했다. 후자의 경우 파트너와의 관계에 따라 비정기적이고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 독립적인 방을 갖길 원했던 그녀와 함께 서울 시내의 홈리스 주거 지원 체계를 찾아 다녔다. 서울시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사업에 따라 여성 홈리스는 필요에 따라 남성보다 기한과 금액 면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봐야 쪽방 및 고시원이지만.
- 함께 방문했던 노숙인 지원기관에서 상담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그녀는 일차적으로 정신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시설에 상담 및 입소를 권유받았다. 즉, 홈리스라는 정체성 대신 장애인이라는 정체성으로만 치환된 것이다.
 - 그녀는 장애인 시설 입소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임시주거지원의 자원으로 활용되는 쪽방은 이미 남자 거주자가 많아 ‘위험’ 하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노숙인 시설로의 입소를 권유받았다. 이 과정에서는 그녀가 ‘여성’ 이기에 가지리라 예상되는 취약성이 부각되었다.
 - 그녀는 재차 ‘시설’ 입소를 거절하고 임시주거지원 (독립된 방)을 희망함을 밝혔다. 그러자 “쪽방 지원을 하되, 문제없이 잘 지내는지 며칠간의 관리감독 기간을 두겠다. 이후 지속적인 지원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물론 노숙인 지원체계의 지침에는 없는 이야기다.
- 그녀는 서울 시내 한 쪽방으로 입주했고, 노숙인 지원기관 사례관리자는 그녀의 생활 전반을 관리감독하며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지, 잠은 집에서 자는지 등등을 체크했다. 역시나 남성 홈리스에게는 부과되지 않는 관리감독이다. 나는 이것이 시설화된 주거지원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이후로도 관리감독을 받으며 임시주거지원을 받았다. 이후 수급을 받으며 독립 생활에 정착하는 듯 싶다가 오랜 기간에 걸쳐 다시 거리 노숙을 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탈출했던 원가정으로 복귀했다. 그녀는 현재 외출과 외박의 제한을 받으며 원가족의 관리 하에 지내고 있다.

- 한편, 여성 노숙인 요양시설 입소자들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머무른다는 특성이 있다. 20년 이상 시설에 머무른 비율이 34.8%로, 이는 남성 노숙인 요양시설에 비해 3배가량 높은 수치다. 이런 현실은 여성보호센터 역시 마찬가지다. 주거가 불안정한 정신질환 여성들이 병원 퇴원 후 지원주택, 그룹홈 같은 주거형태로 진입해 현행과 같은 장기시설 생활이 지속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³⁾
- 유념할 점은,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 시설 입소를 원했다는 점이다. 여성의 독립된 주거실천을 가로막는 요소들은 무엇일까. 무엇이 여성들을 시설st로 가게 하는가.

어디에 살 것인가를 넘어, 어떤 사회에 살 것인가

- 도시와 빈곤 12월호를 읽으며, 가난한 사람들이 도시에서 쫓겨나는 과정이 서로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애를 이유로, 젠더와 구매력, 국적과 인종에 대한 차별 등을 이유로 삶터에서 밀려나는 것이 당연한채로 유지되는 사회의 다른 한편에는 공고한 부동산 사회가 이 세계를 떠받들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시설(혹은 시설화된 삶)과 지역 사회는 외따로 존재하는 별개의 살 곳이 아니라 ‘시설을 통해 유지되는 사회’라는 하나의 공간이다.
- 24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주민의 질문에 “제 대답은 수익성”이라 답했다. 민간개발을 주장하는 동자동 소유주들의 의견에 따라 용적률 등 혜택을 주고 수익성을 높이면 그만큼 쪽방 주민들의 지분도 생길 것이란 대답이다.
- 우리가 해체해야 할 것은 무얼까. 이 사회에 공공임대주택이 많아지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우리 아파트는 아니면 좋겠다는 마음? 쪽방 주민이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해서 참 다행이지만, 그곳이 4평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눈감고 싶은 마음? 취약한 이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 ‘감사할 줄 모르네’라고 빈정거리고 싶은 마음? 늙고, 병들고, 가난하고, 정신질환과 장애가 있는 이들의 요구가 어떻게 사회 보편의 요구가 될 수 있을까.
- 고민은 이런 상황에서 모두의 주거권을 외치는 것이 너무나 당위적으로만 느껴진다는 것. 이것으로 저들의 공고한 부동산사회-경제적 동맹을 깨부술 수 있을까?
- 시설사회를 지탱하는 건 안전과 비용에 대한 보수적 담론이겠지만, 개인의 책임이 된 안전의 모습은 ‘지역사회’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각종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여성전용 고시원을 구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혼자사는 집의 현관에 남자 신발을 가져다 놓은 이들의 모습에서, 또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결혼을 선택하는 이들로부터 이러한 두려움을 함께 읽는다.

3) 서울시 여성보호센터 인권실태조사 의견서, 2018, 홈리스행동

- 한편,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은 국민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확인을 통해, 결혼이주민은 재생산을 통해서만 체류를 허가받는다. 홈리스 이주민은 체류자격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
-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아닌 가구가 수급권을 갖는다. 그러나 배우자와 소득이 낮은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생계를 달리 해도 분리된 가구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는 30세 미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로막거나 사실상 이혼을 인정받을 수 없어 수급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든다.
- 이미 스스로 완전한 상태의 자립이 가능한 이에게 비로소 주어지는 집이라는 틀을 넘어서,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첫 단추로써의 주거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독립의 자격을 심판하는 관리자로서가 아니라, 조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복지가 필요하다.
- 안전이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 된 상황에서, 여성에게 강조된건 ‘보호받아야 할 취약함’ 즉 통치의 시선이였다. 장애여부와 국적, 이주와 혼인 여부 등은 이런 시각을 보수적으로 강화하는 잣대가 되었다. 이것을 ‘안전할 권리’로 주장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무기를 갖출 수 있을까. 더불어 안전이 단순히 치안강화로만 좁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넘을 수는 없을까. 각자가 스스로를 지키는 담장 높은 요새가 즐비한 마을 대신 사회가-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사회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발제3

홈리스 현장에서 고민들

홍수경(홍시)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홈리스행동은 홈리스의 문화와 교육적 권리 실현을 위한 ‘아랫마을홈리스야학’, 거리노숙 거점 지역에서 인권 감시와 상담, 관계를 맺는 현장활동 ‘인권지킴이’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홈리스행동 생애사기록팀’에서 여성홈리스 구술기록집 「그여자방에들어간다」를 출간, 생애사를 기반으로 여성의 홈리스 진입 경로와 폭력 경험, 홈리스 상태에서 겪는 문제 등을 젠더 관점으로 이해하고, 복지제도에서 여성홈리스가 정책적으로 배제되는 문제를 전하고자 했다. 활동을 통해 만난 여성홈리스들이 홈리스 상태에 이르는 경로와 홈리스 상태에서 경험 등은 젠더화 되어있었다. 홈리스 문제를 경제적 어려움, 주거 불안정 등만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뜻한다.

1. 여성홈리스 현실 : 보이지 않는 여성홈리스, 보지 않는 여성홈리스

1) 여성홈리스 규모

- 2021년 보건복지부 ‘노숙인 등 실태조사’에서 전국의 홈리스 수는 14,404명이다. 그중 여성은 3,344명(전체의 23.2%)으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다.
- 여성홈리스는 정말 적을까? 위 실태조사에서 여성홈리스는 ‘오늘 밤 잠자리 선택 이유’로 ‘눈에 잘 띄지 않거나’(10.1%, 남성의 경우 5.8%), 반대로 ‘주변에 다른 노숙인이 있는 곳’(32.4%, 남성의 경우 28.8%)을 택했다. 근처에 ‘안전에 대한 욕구가 표현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노숙인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서(5.8%)’라는 응답이 남성의 응답(0.4%)에 비해 많은 것은 주요 노숙지역 근처에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일시보호 시설이나 종합지원센터 등이 희박한 점, 전국적으로 여성시설이 적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다른 조사에서 여성홈리스는 찜질방, PC방, 만화방 등 돈을 내고 생활하는 곳(53.3%)에서 주로 지낸다(이성은·고은정, 2010). 수중에 돈이 떨어지면 거리 노숙 밀집 지역이 아닌 마트 옥상이나 빌딩 사이 벤치, 건물 지하, 영화관 대기 공간 등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잠자리를 정하기도 한다. 거리에 머문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기에 같은 장소에 일정하게 머물거나 동선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여성의 경우 더욱 그럴 것이다.

- 현행 노숙인 등 실태조사는 거리노숙 밀집 지역, 노숙인시설, (지정된) 쪽방을 중심으로 한다. 이런 기준에선 다양한 거처에서 생활하는 홈리스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다. 여성홈리스의 수가 정말 적은 게 아니라 소극적인 실태조사가 이들의 존재를 가린다. ‘홈리스’를 ‘집을 통해 구성되는 사회적 관계와 권리 등이 박탈된 상태’로 규정, 포괄적으로 홈리스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 여성홈리스 진입 계기 : 홈리스 상태에 놓이는 젠더화된 경로

- 홈리스 상태는 하나의 사건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경기불황, 노동시장에서 저임금·불안정 일자리 확산, 시장화된 주택체제 등 사회적 안전망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실업 및 사업실패, 이혼 및 가족 해체, 질환 및 장애 등이 겹쳐졌을 때 극한의 빈곤 상태인 홈리스 상태에 이르게 된다.
- 홈리스 상태에 이르는 경로는 젠더화되어 있다. 2021년 복지부 실태조사에서 거리노숙의 결정적 계기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실직(45.9%), 사업 실패(13.5%), 이혼 및 가족 해체(11.0%) 순이다. 여성의 경우 실직(21.3%)에 이어 질병 및 장애(17.0%), 가정폭력(15.2%), 이혼 및 가족해체(12.6%) 순이다.
- 여성이 홈리스 상태에 이르는 과정은 이혼이나 가출, 실직 등과 같이 어떤 한 시점의 특정한 생애사적 사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성차별적 가족구조 및 노동시장구조, 사회복지제도 안에서 여성들이 전 생애에 걸쳐 경험하는 차별로 인해 자원에 대한 통제권 및 권력을 상실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김두나, 2008).

2. 홈리스 지원체계 내에서 여성의 자리

- 여성홈리스의 경우 구타·가혹행위, 성범죄와 같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신속하게 복지서비스로 연계하여 이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하지만 홈리스 지원체계는 원칙부터 실행 전반에 있어 성별 특성에 기반을 두지 않은 상태다.
- 2011년 제정된 「노숙인복지법」은 여성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고 이후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2019.01.15.)되었으나 구체적인 정책 설계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여성 거리홈리스에게 가장 먼저, 응급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여성 전용 일시보호시설은 전국에 단 한 곳, 서울에만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그곳 역시 거리 홈리스 밀집 지역인 서울역에서 차로 30분 이상 떨어져 있어 현장 보호 기능에 취약하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활·재활 시설과 노숙인 요양시설을 홈리스의 건강과 장애 상태 등에 따라 나눠서 지원하는데 대부분 남성 위주의 시설이다. 여성홈리스들은 남성이 다수인 시설의 한 부분에 여성 공간이 마련된 곳에 머물기를 꺼린다.
- 송제숙(2016)은 이성애적 가정의 정상성이 노동윤리와 맞물리며 ‘가정’ 바깥의 여성은 복지 해

택을 받을 자격이 부적절한 존재로 재현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⁴⁾ 실제로 가족의 정상성과 젠더폭력, 건강상의 문제 등이 중첩되어 발생하는 여성홈리스의 위기는 현 복지제도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

3. 홈리스 상태에서 경험

- 현행 지원체계에서 홈리스 상태에 처한 이는 거리 혹은 시설 외 선택지가 없다. 여성 홈리스의 거리에서의 경험을 구술 형태로 소개한다.

“거리에 여자들이 별로 없어요. 거리에 있기 불편하기도 하고, 있으면 남자애들이 닭 쪄듯이 또대요. 하도 욕설을 퍼부어서 보통 얼굴이 두껍지 않으면 못 견뎌요. ~ 하루는 밥을 먹으러 아침 7시에 따스한 채움터(노숙인 무료급식소)에 갔는데 70명 정도 남자들이 있고, 여자는 나 혼자야. 고개를 있는대로 숙이고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남자가 대놓고 나 보고 끌린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고는 안 되겠다 하고 다시는 안 갔어요.”

- 2018년 홈리스추모제 여성팀 구술 인터뷰 중

“여성홈리스가 밥 먹으러 줄 서면, 남자들이 ”식당 가서 일하고 밥을 먹지“ 그래.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야. ~ 여성홈리스가 적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닌 척하고 하고 있고, 안 보이는 데 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화장실 안에도 바깥에 사람이 있어요. 장애인 화장실 앞에도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있을 데가 없어서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짐이 많으니까 밥 먹으려도 못 가고”

- 「그여자가방에들어가신다」 서가숙 이야기 중

- 정책의 한계 속 매일의 생존이 위기인 여성 홈리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스스로의 몫이 됐다. 서울역에는 밥과 잠자리를 미끼로 여성 홈리스를 노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2017년 대전역에서 생활하던 여성홈리스를 안면이 있던 남성이 술을 마시자며 집에 데려가 살해한 뒤 가방에 담아 공터에 버린 사건이 있었다. 2023년에는 서울역 인근에서 생활하던 여성 홈리스가 성폭력 범죄로 사망했다. 여성홈리스에 대한 지원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고인의 상태를 이용한 범죄다.

* 거리 홈리스가 서울시 지원(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주거는 고시원·쪽방과 같은 비적정 거처가 전부다. 이런 거처는 층별 성별 분리커닝 화장실, 샤워장 등 필수생활 설비조차 공용으로 두고 있어 여성을 목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 2023년 여성노숙인재활시설에 거주하던 지적장애 여성이 행인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시설 내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시설을 나와야 했던 여성은 “교도소라도

4) 송제숙 (추선영 옮김), 2016[2009], 『복지의 배신』, 교양: 이후.

가고 싶다”며 범죄를 저질렀다. 해당 시설 연간 예산은 1,800만원 정도의 영세하고 집단 감염을 감당할 수 없는 취약한 곳으로 홈리스 상태에 놓인 이에게 적절한 주거라 볼 수 없다. 특정 시설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시설은 집이 될 수 없다는 것과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설이 아닌 주거지를 우선 제공하는 ‘주거우선(Housing first)’ 전략 채택은 주거권 단체의 오래된 요구이기도 하다.

4. 무엇이 필요할까? 여성홈리스 존재 인정, 성별 특성을 반영한 홈리스 지원체계 구축

- 여성홈리스 포괄적인 홈리스 실태조사 실시 : 여성홈리스가 주거처로 삼는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을 실태조사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정확한 정책 대상 규모와 특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 성별 특성을 반영한 홈리스 지원체계 구축 : 「노숙인복지법」이 정한 복지서비스는 주거지원(제10조), 급식지원(제11조), 의료지원(제12조), 고용지원(제13조), 응급조치(제14조)의 다섯가지로 구분됨. 각 영역에서 여성홈리스는 남성과는 다른 젠더화된 경험을 하기 때문에, 모든 복지서비스에 있어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 * 고민되는 것은 여성홈리스 지원 체계 구축이 곧 여성홈리스를 ‘보호’한다는 이름 아래 단속이 될 수 있다는 점. 여성홈리스 지원체계 구축은 곧 홈리스 지원체계를 똑바로 세운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함. 임시주거지원 사업 개선, 공공임대주택과 지원주택 확충 등 주거복지의 확대가 여성홈리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일 것임. 여성 홈리스에게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복지 제도의 선택지를 넓혀야 함.
- ** 여성홈리스(피해)와 남성홈리스(가해)가 대립하는 구도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고민도.

발제4

‘분리된 세계’ 속에서 (기꺼이) 존재하는 여자들

나나 /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활동가

- 그동안까지 나에게 집은 평생 가질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어쩐지 공허함이 가득한 공간으로 다가왔다. 잠시 빌린 집에서 살더라도 이게 내가 사는 건지, 집주인을 살게 하는 건지, 은행을 살게 하는 건지, 누구를 살게 하는 건지 아리송한 기분을 느꼈다. 꿈꿈 체제전환 주거권 팀과 만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나와 내 주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 하나를 얻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다. 소유가 아닌 존재로서 머물 자리를 고민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권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연대, 그 만남이 정말 소중했다. 이 글은 이 만남을 통해 주거권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반성매매 활동가의 고민이 담겨있으며, 따라서 고민은 성기고 거칠 수 있다. 그럼에도 조금 더 반성매매 운동에서 주거권 운동을 ‘잘’ 이야기하기 위해, 단지 하나의 ‘제도’와 ‘물적’으로 얘기되는 주거권보다 더욱 풍성하게 반성매매x주거권 논의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어 적게 되었다.

#1

- 사람마다 이태원을 기억하고 호명하는 방식은 다르다. 어떤 이에게 이태원은 ‘힙한 공간’과 해방의 공간일 것이며, 또 어떤 이에게는 사회적 참사가 있는 아픔이 있는 공간 또는 ‘다국적·다문화 공간’일 것이다. 이 글은 복합적인 역사를 지닌 이태원의 역사 중 하나를 소환하고자 한다.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은 한 달에 한 번 이태원 우사단로(일명 후커힐 hooker hill) 유흥업소에 현장방문 활동을 한다. 이곳은 생계를 위해 미군에게 성을 제공하였던 여성들이 존재하는 기지촌의 역사를 지닌 공간이기도 하다. 후커힐에는 해방 이후 주한미군 사령부가 용산기지로 이전하며 ‘양공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1970년대 부평에 있던 미8군 병원이 용산으로 이전해 오며 기지촌으로써 역사는 시작되었다⁵⁾.
- 발전주의 정부는 성매매가 가능한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이 공간에서 여성의 몸을 활용하여 발생한 이윤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뤘다. 특정지역은 성매매 여성들이 ‘일반 시민’의 안온과 안위를 위해 보이지 않게 존재해야 하는 ‘분리된 세계’였다. 여성들은 분리된 세계에서 격리되어 이동을 제한받았고, 사회적 낙인 속에서 성매매하는 여성이라는 역할로 고정되었다.⁶⁾ 이에 더해 여성들을 향한 단속과 처벌은 ‘성을 파

5) 김주희(2017), 미군 기지촌에 대한 기억의 정치와 변모하는 민족주의, 문화 연구.

는 여성’이라는 낙인을 공고히 했다. 당시 이태원에 살고 있는 여성들은 이 공간에 ‘산다’는 사실을 말하기 어려워했다. ‘그런 여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낙인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성매매가 가능한 곳이 집결해 있다고 여겨지는 청량리 588, 미아리 텍사스 집결지도 마찬가지였다. 여초 커뮤니티에는 강남 논현동과 선릉에 혼자 살고 있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조언처럼 떠돈다. ‘그런 여자’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 내가 만난 고령의 여성들은 청량리와 이태원 인근을 벗어나지 않는다. 살던 곳을 바꾸고 싶지 않고, 정주하고 싶었던 여성이 ‘선택’이 작동한 결과다. 동시에 ‘누가 알아볼까’ 하는 마음에 최대한 지역 이동을 자제하고 살아온 시간이 몸에 쌓여있기에 작동된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소유로서의 주거권, 기존의 정상 가족 체제와 이성애 규범을 강화하는 주거권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논의에 정말 십분 동의한다. 동시에 반성매매 현장은 어떤 ‘존재’가 한 동네에서의 낙인을 감내한 채 수십 년간 살았다는 것, ‘일반’ 세계의 정상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분리된 세계에서 여성을 법적·사회적으로 처벌을 가하고 낙인찍음으로써 다시금 여성을 매춘화 시켜 정박시킨 성매매 집결지의 구성 방식을 어떻게, 어떤 언어로 주거권의 논의에 함께 녹일 수 있을지 고민한다.

#2

- 자본의 이해로 재편된 도시는 ‘낙후성’을 빌미로 오랜 시간 그 땅에 존재하며 삶을 이루고 있던 수많은 존재들을 추방시켰다. 이에 더해 여기 ‘도시 이미지의 실추’와 ‘시민의 안전’을 명목으로 언제나 쫓겨나는 존재들이 있다. 성매매 집결지와 기지촌에 존재하는 여성들이다. 그러나 모든 도시의 역사가 다르고, 자본의 시간 차가 존재하듯 성매매 집결지와 기지촌의 폐쇄는 동일한 맥락에서 진행되지 않는다.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듯 청량리 588 폐쇄는 그 땅에 머물던 존재가 도시 재개발을 필두로 쫓겨남의 역사임과 동시에 성매매 집결지를 운영하던 폭력조직이 건설사가 되어 자본을 축적하고, 업주들은 집결지에 남아서 일하려는 여성에게 ‘깎세’를 올려받음으로써 이윤을 착복하였다. ‘쫓겨나는 사람들’의 공동의 이해관계 속에서도 중층적인 권력관계의 불균형이 존재함을 시사하는 증표다.
- 현재 이태원 후커힐은 용산 미8군이 평택으로의 이전과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축소되고 있다. 여성의 몸을 통해 많은 이윤을 창출하여 돈이 많은 업주들은 소비자의 축소와 지형의 변화를 재빠르게 인식하고 평택 송정리⁷⁾로 이동하였다. 이태원은 젊은이들의 ‘힙한 거리’로써 상권이 조성되어 유동 인구가 많지만, 후커힐에 드나드는 사람은 드물다. 후커힐은 떠나지 못한 낡고 오래된 ‘양키’바와 젠더바가 함께 공존하며 ‘도시의 섬’과 같이 존재한다.⁸⁾ 이제 후커힐은 큰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용산구 한강과 근

6) 장원아(2022), 달아나고 싸우는 여자들의 역사로 본 ‘분리된 세계’, 불처벌, 휴머니스트.

7) 평택 미군기지 인근에 있는 유흥업소 집결지로 ‘제2의 이태원’이라고 불린다.

접한 ‘금싸라기’ 땅에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이라는 ‘한남뉴타운’ 개발 사업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2023년 한남4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통과됨에 따라 이곳에서 삶을 누렸던 여성들의 거주지가 대대적으로 헐렸다. 그 공간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노동하였던 여성들은 치솟는 방값을 감당할 수 없어서 뿔뿔이 흩어지고 있다. 남아있는 후커힐 여성들은 ‘어떤 한 세대가 끝나버렸다는 감각’과 자신이 종사하는 업소가 ‘사양산업’인 것 같다고 말한다. ‘그 많던 언니들은 어디로 갔을까’⁹⁾를 질문하는 동시에 후커힐은 계속해서 ‘새로운 여성’을 맞이한다.

- 이태원 후커힐의 ‘쫓겨나는 존재’들은 낙인찍히고, 날카로운 시선을 감내하더라도 여전히 그곳에 살아가고자 한다. 이 여성들은 왜 이곳에 살고자 하는 것일까. ‘좋은 시절’이었던 젊은 시기의 대부분을 보낸 곳이기도 하고, 나를 만들어 준 세계이기도 하다.¹⁰⁾ 그 공간은 여성들에게 분명한 삶터이자 일터였다. 때로 동료들과 웃고 떠들며 지긋지긋한 싸움을 이어 나가더라도 또 어느 순간 자연스레 서로의 건강과 노년을 챙겨주는 삶이 흐르고 있다. 우리는 후커힐의 재개발 국면에서 또 어떤 상황을 목도하게 될까. 자본은 이 공간에서 살던 이들의 삶을 또 어떤 이해관계 속에 배치하며 어떤 긴장과 균열을 만들어 낼까. 그 속에서 어떤 존재들이 밀려날까. ‘여성 인권’과 ‘시민 안전’이라는 슬로건하에 밀려나는 존재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 빼앗긴 ‘여성 인권’의 언어를 되찾고 싶다. 여성의 몸을 활용하여 이윤을 축적하는 네트워크 공동체(업주, 건물주, 건설사, 국가권력 등)의 책임을 물으며 동시에 여성들의 살 자리와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기 위해 운동은 무엇부터 시도해 볼 수 있을까.

#3.

- 개인적으로 글을 쓰며 너무 어려웠다. 고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논리적으로 체계화하여 전할 수 있을지도 막막했고 여전히 막막하다. 머릿속에 돌고 도는 고민은 여전히 많다. 이걸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주변 사람들에게 한숨을 푹푹 쉬며 온갖 피로운 티를 다 냈는데(이름 동료들, 꿈꿨던 주거권팀 동료들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때 한 동료가 전해줬던 격려의 말이 생각난다. ‘나 이렇게 성글었지만 그건 배울 점 많은 건데! 그러니까 데리고 가주오! 현장 같이 만들자!’ 그 말은 어쩐지 위로로 다가왔고, 글을 마무리 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 같다. 거칠지만, 성기지만, 그래도 치열하게 고민하는 끈을 놓고 싶지 않다.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많은 현장과 동료들 만나고 싶다.

8)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이태원 ‘후커힐(hooker hill)’에는 업소 수 27개, 약 150명의 여성이 종사하고 있다(2024년 기준). 루인 캠프트랜스(2012)에 따르면 이태원은 기지촌 역사임과 동시에 트랜스젠더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9)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2024), 떠나지 못한 사람, 떠나지 않는 사람 ‘이태원’ - 이태원 유흥업소 종사 여성 6인 구술자료집.

10) 위의 책